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 후원회보

나눔공동체

제277호
2019년 5월 1일

펴낸곳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펴낸이 : 나승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주소 :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 전화 : 02)777-7261 전송 : 02)778-3414
홈페이지 : www.poor.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oor1004 e-mail : scup@seoul.catholic.kr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다.(요한 21, 19)

묵상그림: 박기웅 아우구스티노

이웃이 되어준 사람

정의의 시작은 연민입니다.

임용환 엘리아 신부 / 장위1동 선교본당 주임

사람과 동물을 구별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반려동물을 보낼 때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 죽음에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생들의 죽음에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생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구촌 저편의 굶주리고 테러로 내전으로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불쌍하고 가련한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혹자는 인류가 무리지어 생활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연민 능력이 발전됐다고도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이런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연민은 단순히 연민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이어지고 그들의 처지를 알게 되면서 분노로 이어집니다. '왜 그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 또는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뒤에 숨겨진 불의와 부정, 악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그것을 없애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함께 싸웁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불의와 악을 바로 잡는 정의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연민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삶도 그 시작은 연민이었습니다.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마르 6,34)
"저 군중이 가엾구나."(마르 8,2)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루카 7,13)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11,35)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들에 대한 연민은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당시 종교와 사회에 대한 분노(성전정화, 마태 21,12 이하 참조)로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수난과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연민을 잃어버린다면 동물과 기계, 그리고 요즘 영화와 방송에 등장하는 좀비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본 방송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기계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사용하고 나서 그 기계를 실험실로 가져와 차츰 높은 전압을 가해 결국은 'KILL' 단추를 눌러 그 기계를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이 기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계를 파괴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계에 정이 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계에도 연민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연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 죽음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황님 말씀대로 '무관심의 세계화'입니다. 기계 기술의 발달로 점차 기계를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연민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의의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정의의 시작은 연민입니다.

제11차 동자동사랑방 정기총회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에 1평 남짓한 쪽방에서 1,050여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이 있습니다. 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공동체인 〈동자동사랑방〉은 최극단 도시빈민인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의 인권, 복지 실현과 함께 생활하며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설립 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3월 30일(토) 오후 2시, 제11차 동자동사랑방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마을사업 활동보고와 평가가 있었으며, 2019년도 주요사업인 '주민활동가의 발굴, 주민방문, 소모임 활성화, 마을장례 지원, 형편에 따라 밥값을 내는 식도락 등을 심의하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미사 '바래지지 않는 다섯 해의 기억'

세월호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천여 명의 신자들이 참례한 이날 미사는 "바래지지 않는 다섯 해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승구 신부가 주례했습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미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과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올바른 인식과 구체적 실천, 변화는 가능합니다.

박효정 세라피나 활동가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이는 어떤 낱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의 원천이고 적어도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이며 원칙적으로 빈곤을 막는 효과적인 도구'(간추린 사회교리 257항), '창조 행위뿐 아니라 구원 행위에도 참여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차원'(같은 책 263항), '하나의 의무, 말하자면 인간의 임무'(같은 책 273항), '처음부터 창조의 신비가 작용'(노동하는 인간 12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며,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찬미 받으소서 128항)

네, 정답은 "노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노동. 사전적 정의를 가만히 보면 노동하는 당사자가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함'이란 뜻을 가진 '근로'라는 말보다 훨씬 힘찹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더 나아가 노동을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행위로 보며, 노동자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확실히, 대단히 멋지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 노동·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여러 교육 사업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권리교육, '숨'입니다. 본당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4주간 만나며 노동의 본래 뜻과 가치, 인간 존엄성, 노동자의 권리, 임금 및 근로계약서에 대해 나눕니다. '숨'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매번 강의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힘듦, 정식 사원이 아닌 인턴, 막노동,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일, 알바하는 사람, 비정규직,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 청소년이 노동의 세계에 진입도 하기 전에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사회가 노동과 노동자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콜텍이라는 기타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2007년 4월 별안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출근길에 느닷없이 당한 부당해고 앞에서 그냥 눈감지 않고 12년을 길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그분들과 함께하는 미사 끝 무렵, 한 달 넘게 단식투쟁 중인 노동자에게 한 말씀 청했는데 그분의 발언은 놀라웠습니다. "회사가 우리한테 이런 저런 나쁜 짓을 해도 기타는 한국 기타가 최고다." 도대체 사장이 제정신이라면 자기 회사 제품에 이런 자부심을 가진 노동자를 어떻게 내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뭉쳐진 그의 노동은 그 어떤 이윤의 논리도 파고들 수 없는 것입니다.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시지가 두 개 왔습니다. 20대 청년 두 명에게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둘 모두 입사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1년째입니다.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 이들이 가지는 실의와 무력감을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이 보장된 괜찮은 일자리 갖기 너무 어려운 세상에서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장년 노동자는 해고되었고, 청년 노동자는 아예 애초부터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추가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고, 불의에 대항하면 해고 불안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립니다. 모든 세대 노동자들이 가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을 통해 창출된 부는 이제껏 누구를 풍요롭게 한 것일까요?

노동과 노동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데 따르는 잘못된 실천은 많은 노동자를 아프게 합니다. 비뚤어진 우월감과 열등감,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 갑질, 이윤극대화를 위해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는 행태,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기 힘든 비정규 노동,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어 안전장치 없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 지면상 모두 나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견고해지고 고착화된 노동 문제들, 사회 부조리와 구조적 모순이 과연 일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과 회의감과 무력감이 크게 차오릅니다. 숨도 턱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고 확신할 때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역할은 단 하나, 끊임없이 약자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실천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방법이 있다'고 격려하며 쉬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이 교회 그 자체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아도 변화는 옵니다. 노동자들은 그 변화를 이미 만들어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5월 1일 기념하는 노동절이 그 증거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벌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 프랑스에서 뭉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1일 8시간 노동시간 법제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동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와 수많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있었습니다. 노동절은 129회를 맞는 2019년 오늘까지도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기억하며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기념하고 희망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맛 본 우리이기에,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는 연대하여 불의에 저항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구체적 연대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고, 모든 노동을 존중하고, 내 이웃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의 어려움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노동 문제 개선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지를 보내는 일 등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행하다보면 변화는 옵니다. 그것을 믿고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2019.3.16. ~ 4.15)

* 가나다순, ( )는 가족회원 또는 동명이인

논골신협
케녹스사운드
KBS 가톨릭
김복진, 김희숙, 김종문, 김현정, 김익완, 김민형, 김인순, 강재석, 강동구, 강춘희, 김혜승, 김현구, 김현숙, 김경출, 김숙자, 김용승, 김범석, 김춘일, 구연옥, 구순종, 김진숙, 김재덕, 김경원, 김정희, 김찬희, 권성태, 강한여, 김미경, 김동화, 김한갑, 김은경, 김소향, 김진국, 김부연, 김관욱
노영숙, 노영미, 남궁윤
당은자, 당현준(김민선)
류선희
민완자, 문승배, 문광숙
박경근, 박재광, 박경자, 박진희, 박민정, 박종동, 박무웅, 박명희, 박현우, 박창원, 백철, 박승진, 방광숙, 봉형원, 박희숙, 박영자, 박베드로, 박상욱, 박재숙, 박신재, 박은희, 박희숙
선우영지, 서정희, 심혜숙, 성재숙, 신재영, 선우영란, 신영근, 신정엽,
신명실
인창근, 이묘순, 이명훈(구혜숙), 옥두선, 이흥춘, 이옥하, 오정화, 유현숙, 왕금희, 이혜숙, 유재석, 이창진, 오순애, 이재은, 유춘순, 이승숙, 이상복, 이명자, 이미연, 이청자, 이명수, 이태우, 윤홍열, 이현자, 임인선, 윤현숙, 유영민, 이상순, 이혜금, 이상미, 이윤신, 이계화, 이상영, 이영숙, 우정원, 이희자, 이철호, 임행자, 유현준, 임차성, 이정우, 이완, 이명숙(김승수), 유환준, 안창모, 유정자, 이은석, 원규섭, 오정녀, 임선옥, 이준호, 양승선, 윤용대, 이효신, 이득신
정순택, 장데레사, 장후남, 정정옥, 정영화, 전정림, 조상영, 지영호, 지경택, 정희순, 조병우, 장미화, 장서인, 진종석, 지수환, 정수 젤마노, 조연수, 조교호, 정병선, 장문선(장희재), 정구호
최정은, 최경자, 최치환, 최옥주, 최경희, 추정인, 최순, 차영애, 최인정, 채정숙
홍성주, 한효, 홍성옥, 홍완희, 한영미, 하계옥, 한영옥, 하영자, 홍정민, 현창호

2019년 3월 살림보고

3월 1일 ~ 3월 31일

수 입		지 출	
후 원 금	3,851,000	현장지원비	1,000,000
이 자 수 입	13,983	연대활동비	1,298,900
기타후원금	5,600,000	연 구 비	1,000,000
잡 수 익	353,329	회원관리비	620,680
소계	9,818,312	소계	3,919,580
전년이월	68,220,349	차기이월	74,119,081
합 계	78,038,661	합 계	78,038,661

빈민사목후원금은 이런곳에 사용됩니다

- 빈민사목 정책과 주거권 운동 지원
- 교육과 양성사업 지원
  - 주민지도자 양성과 교육
  - 빈민사목 선교활동가 양성과 교육
- 빈민현장 지원
  - 긴급구호와 긴급지원
  - 지역 아동 • 청소년 활동 지원
  - 협동조합 사업

후원회비를 송금하시려면

- 지 로 : 7600351
- 국민은행 : 004-01-0596-203 (예금주 :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하나은행 : 192-810063-59105 (예금주 :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신한은행 : 100-003-156713 (예금주 :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우리은행 : 454-018950-13-001 (예금주 :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신 협 : 01168-12-001422 (예금주 :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농 협 : 301-0082-5015-21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자동이체로 바꾸신 회원님께서는 빈민사목후원회로 전화(☎ 02-727-2427, 777-7261)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빈민사목위원회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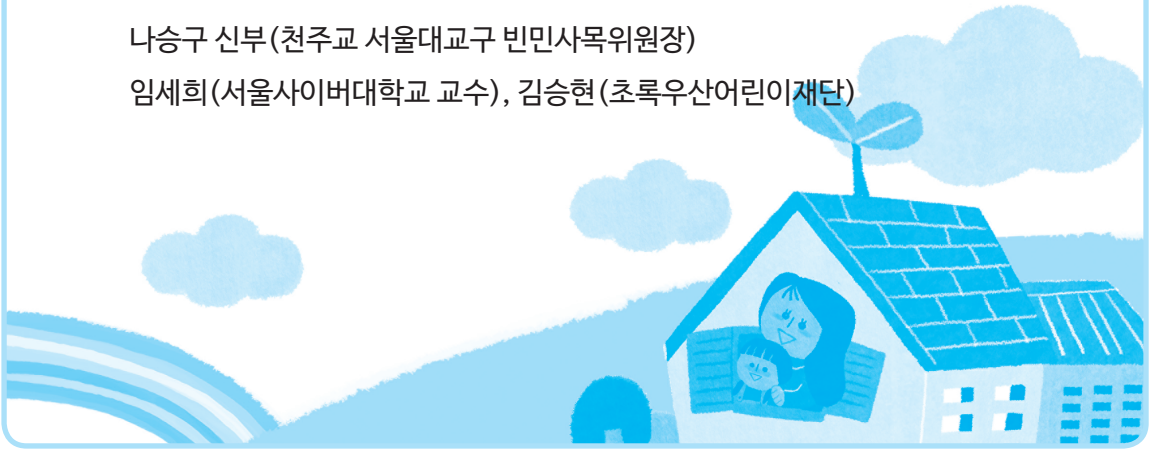
- 주제: 소리 없는 외침, 아동 주거빈곤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
- 일시: 5월 23일(목) 오후 3시 ~ 5시
-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좌장: 김혜승(국토연구원)

  발제: 양민호(시흥시 주택과 팀장),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토론: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연(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나승구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자 기도 요청

* 기도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지로용지 뒷면 통신란에 기재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전화번호 02-777-7261)

· 명례방협동조합 월례미사에서 빈민사목 후원회원 가정을 위하여 미사지향을 넣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민사목 선교본당 미사시간 안내

선교본당	주일미사	평일미사	연락처	위치
금호1가동 선교본당 (샛마루 공동체)	오전 11:00	화 · 수 · 목 · 금 오전 7:00 토 오전 10:00	02)2281-9868	2호선 신당역 3번 출구 - 마을버스 1번 대림아파트 후문 하차
무악동 선교본당 (독립문 공동체)	오전 11:00	월~토 오전 6:30	02)722-5808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 - 독립문 초등학교 인근
봉천3동 선교본당 (하늘자리 공동체)	오전 10:00	월 · 수 · 금 · 토 오전 7:00, 목 오전10:00	02)877-9823	2호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 지선버스 5513번 관악푸르지오아파트 하차
삼양동 선교본당 (솔샘 공동체)	오전 10:00	금 · 토 오전 8:00, 목 오후 7:00	02)983-6095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 출구 - 마을버스 12번 SK북한산시티아파트 하차
장위1동 선교본당 (하늘아래 공동체)	오전 11:00	수 · 금 오전 9:00	02)909-0488	4호선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 마을버스 5번 ‘8번지 입구’ 하차

* 평소 선교본당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미사 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나눔이 있습니다.)